

김치냉장고 잘나가네... 불황에도 웃는 ‘계절가전’

지난달 광주·전남 김장철 앞두고 매출 급증

에어컨, 지난 6~7월 30~80% 성장세 뚜렷

경기 불황이 지속된 가운데 대표적인 계절가전인 김치냉장고 판매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도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3일 신세계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따르면 본격적인 판매 시즌에 돌입한 김치냉장고가 10월 뚜렷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고 지난 여름 에어컨 판매 성적도 좋아 올해 계절가전 매출

은 ‘뽕년’이 예상된다. 이마트는 본격적인 김치냉장고 판매 시즌이 시작된 지난 10월 한 달간 광주·전남 지역 김치냉장고 매출을 분석한 결과 작년 대비 뚜렷한 15%, 스탠드형은 70% 매출신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마트 역시 이 기간 각각 30%, 5% 신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장철인 11월과 12월에 매출이 급신장하고, 배추 등 김장 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김장을 직접 담그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판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여름 가전인 에어컨의 판매성적도 기대 이상이었다. 지역 이마트의 지난 6~7월 에어컨 판매는 30% 성장세를 나타냈고,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마트 역시 작년과 비교해 60%와 80%에 가까운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신장세에 가전업체 역시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원조 김치냉장고 ‘딤체’의 제조사인 위니아만도는 지난달 김치냉장고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0% 늘었다고 전했다. LG전자는 10월 한 달간 10만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으며 올해 김치냉장고 매출이 지난해보다 최소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김치냉장고에서 30~40%의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냉장

고 출하량은 99만5800대로 2011년(128만8000대)보다 23% 급감하면서 김치냉장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처음 100만대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신장세를 볼 때 110만~120만대 수준을 무난히 회복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가전업체 한 관계자는 “불경기 속에서도 국내 시장 규모 1조원을 넘는 두 계절가전이 선전하면서 침체한 가전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중소형주·코스닥 종목 강세

이번주 증시도 외국인의 순매수 여부에 증시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이 사상 최장기인 44일간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며 2011년 8월 이후 박스권 상단이라 할 수 있는 2050포인트 돌파를 3주째 시도했다. 지난 26개월 동안 여섯번째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번주에도 역시 2,050포인트 돌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00~2050포인트를 중심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

숨고르기 장세는 지난 4개월동안 국내증시 상승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외국인의 순매수가 매도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매수강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60원을 하회하며 수출경쟁력 둔화 우려와 정부의 환율시장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기대감이 감소했다. 환율하락이 둔화되면서 예전과 같이 환율하락에 편승했던 외국인 매수세력의 추가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펀드판매 압력에 따른 매물 부담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 약화로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며 바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기간 조정이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인 매수가

강한 시장에서는 대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연출되고 외국인 매수강도가 약할 때는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번주 외국인의 매수강도가 약해진다 대형주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들이 대형주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반도체, 휴대폰, 태블릿 부품주 등을 중심으로 순환매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이 흐름은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투자 주체는 여전히 외국인이고 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라 할 수 있다. 대형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외국인의 유동성밸리로 형성된 지금의 주도주가 현 장세의 마지막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바닥권의 종목을 찾기보다는 이번 기간조정을 이용해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된 IT, 자동차, 통신, 서비스업종의 대표주를 저점매수,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 밸리에 편승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이석재 KT회장 사의 표명

배임 혐의의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석재 KT 회장이 3일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KT 사옥과 자택에 대해 2차 레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과도한 보수 논란 등으로 임지가 좁아지면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직원들에게 고통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슬로몬왕 앞의 어머니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며 “이사회에 사임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후임 CEO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과제를 처리하고 후임 CEO가 새로운 환경에서 KT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후임으로는 ‘황의 법칙’ 창시자로 유명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 한글과컴퓨터 사장을 역임하고 친박 측근 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비맥주 정책홍보 부사장

최수만 전무 승진 발령

오비맥주(사장 장인수)는 3일 최수만 전무(사진)를 정책홍보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최 부사장은 정보통신부 국장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거쳐 2008년부터 오비맥주 정책홍보 담당 전무로 일해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마음은 벌써 크리스마스

2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정문 광장 정원에 1만여개의 꼬마전구로 꾸민 크리스마스트리가 점등됐다.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 트리는 내년 1월 초까지 불을 밝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월 수출액 사상 첫 500억달러 돌파

지난달 505억달러 ... 전년동기보다 7.3% 증가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 월간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0월 수출액이 505억11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470억8800만달러)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 같은 수출액은 월간 규모로 사상 최대치다. 종전 최대치는 2011년 7월의 489억5000만달러로 2년 3개월 만에 월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1964년 연간 1억달러에 불과

했던 우리나라 수출은 1977년 연간 100억달러 달성에 이어 반세기 만에 월간 500억달러의 신기원을 이루냈다. 월간 수출액 100억달러는 1994년 12월에 기록했다. 19년 만에 월간 수출실적을 5배로 늘렸다. 이어 2004년 3월 월간 수출액 200억달러, 2006년 11월 300억달러, 2008년 7월 400억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수출액 500억달러(1988년)에서 월 수출액 500억달러까지는 25년이 걸렸다.



지난해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우리 수출은 올해 1분기 0.4% 증가로 반전에 성공

한 뒤 2분기(0.7%)와 3분기(2.8%)에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수출 증가율은 1.9%다. 미국시장에서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과 자동차가 호조를 보였고, 중국에서도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이 선전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분기 4.7% 감소로 출발했으나 2분기 9.1%, 3분기 8.3% 증가로 회복됐고 10월에는 무려 23.2% 증가했다.

EU로의 수출도 8,9월에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으나 10월에는 16.0% 증가로 반전시켰다. 반면 대일 수출은 엔저 여파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9월 -1.5%에서 10월에는 -8.8%로 감소폭이 커졌다. 특히 엔저로 인해 달러환산 수출금액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2014년도 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비지원 FTA비즈니스학과 석사과정 모집

조선대학교 대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FTA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호남권(조선대학교) / 수도권(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15명(4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5명(8학기)

수업시간 및 교육내용

- 수업은 주중 야간(19:00~) 및 주말에 실시함
- FTA비즈니스모델, 무역경영 및 수출입실무, 원산지제도 외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전형방법

-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임원 및 우편 접수 불가)	2013. 10. 28(월) 10:00 ~ 11. 7(목) 17:00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유휴이어플라이 http://www.uwasyapply.com 을 센터 1588-8988
입학지원서(출제권) 및 서류제출	2013. 10. 28(월) 10:00 ~ 11. 8(금) 17:00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우)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밀문대로 309-2(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합격자 발표	2013. 12. 5(목) 예정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www.chosun.ac.kr/~grad)에 발표함

모집요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FTA비즈니스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062)230-7283 www.chosun.ac.kr/~grad

조선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냉기차단

겨울철 실내온도 3~5℃
난방비 15~20%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후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